아시아 다양성 담긴 이색 도서 만나볼까

ACC재단 '들락 북스' 브랜드 출범
팝업북·전문도서·그림책 등 발간

1. 그림책 '깔깔나무', 2.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 3. '블루밍: 아시아의 꽃 이야기', 4. '인도네시아 버내큘러 디자인', 5. '움직이는 아시아, Verb' 2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최근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을 담은 팝업북, 디자인 전문도서, 그림책 등을 잇따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ACC재단은 올해 문화상품 브랜드 '들락 DLAC'의 도서브랜드인 'DLAC 북스'를 출범하고, 박현민 작가의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 아시아 문화예술 매거진 'Verb 2호_치다' 등 총 5종의 도서를 발간했다.

재단은 지난달 20일 ACC 창·제작 어린이 공연을 각색한 그림책 '깔깔나무'를 출간했다. 이 그림책은 과거에 존재했지만 난개발로 인해 사라져버린 '깔깔나무'를 찾으며 마음이 자라나는 아이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과 환경의 소중함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교훈을 선사한다. 연극 원작자인 박새봄 작가가 글 각색 작업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에 앞서 11월에는 디자인 전문도서 '인도네시아 버내큘러 디자인'를 선보였다. 인도네시아의 그래픽 디자인을 새롭게 조망하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탐구한 이 책은 독자들의 직관적 해석을 도울 수 있는 구성으로 제작됐다.

또 10월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8개국의 아름다운 국화를 생생하고 역동적인 팝업으로 표현한 팝업북 '블루밍: 아시아의 꽃 이야기'를 출간해 큰 인기를 얻었다.

9월에는 아시아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움직이는 아시아, Verb' 2호를 발간했다. '치다(Hit)'를 주제로 치는 행위의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보여주는 기사를 실었다. 코로나19 같은 강력한 질병이 온 세상을 공격할 때, 엔데믹을 맞아 다시 여행을 시작한,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힘겨워진 도시 이야기 등을 다룬다.

각각의 도서는 다채로운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독특한 구조와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구성해 소장가치를 더해준다.

이와 함께 'DLAC 북스'는 서울국제도서전과 수원 북키즈콘 등 다양한 북 페어에 참가하며 활발한 유통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어린이 그림책을 실감 콘텐츠로 개발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전시를 아제르바이젠 바쿠 북페어에 유통하고, 볼로냐 국제도서전에 도서를 출품하는 등 국·내외 유통 채널을 확장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 문화다양성을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도서를 출간할 예정"이라며 "2025년에는 베리어 프리 도서(점자책) 등 기존 출판사와 차별화된 ACC재단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감성을 지닌 도서를 제작해 '들락 북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에서 발간한 도서들은 ACC 문화상품점 '들락'과 어린이문화원 내 상품점 '들락키즈'를 비롯해 온라인숍 '들락(www.accdlacshop.co.kr)', 온·오프라인 서점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아이러니한 도시인 삶 속 원초적 자연을 상상하다

김곳 시인 세 번째 시집 '수풀떠들썩팔랑나비' 발간

도시인의 아이러니한 삶과 화자의 연민을 직설적 어법으로 드러낸 시집이 발간됐다.

김곳(사진)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수풀떠들썩팔랑나비'(작가마을刊)다. 지난 두 번째 시집 이후 자신의 작품활동 변화를 추구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표제시 '수풀떠들썩팔랑나비'에서 보여주듯 시편 하나하나에는 대상에 대한 관찰이 돋보인다.

"…청각장애인 둘이 마주 앉아 팔랑춤을 춘다/소리가 없는 그들은/손가락이 입술이고 글자다/손가락이 목소리고 노래다/천수 날개 돋는 나비였다가 벌새였다가/현란한 저 손놀림/개망초로 엉겅퀴로 쉴 새 없이 분주한/손가락 춤사위/나비들 짝 춤에 신나서 달리는 지하철 안 소리들이/날개를 파닥이며 날아다닌다/수풀 떠들썩한 궁금증이 풀렸다고/허공의 손잡이들 흔들흔들 흔들흔들/수풀떠들썩팔랑나비/수풀떠들썩팔랑손나비"

이러한 시인의 자의식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식의 발로다.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사회적 이슈를 몰이하고자 하는 구호시가 아니다. 장애인이나 '긴바지', '반바지'로 치환되는 우리 사회의 일반인들이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 세계를 화자는 놓치지 않고 그물망으로 포획한다. 결국 그 화자의 중심이 곧 시인 자신인 보통 이웃들의 이야기다.

앞선 시인의 시집들에서 자기중심적 사유의 시가 많았다면, 10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시집은 바로 우리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최휘웅 시인은 "김곳 시는 도시의 일상을 발아한다. 청각장애인의 수화에서 천수 날개 돋는 나비, 더 나아가 개망초, 엉컹퀴가 있는 원초적 자연을 연상케 한다"고 평했으며 정익진 시인은 "김곳 시는 톡톡 쏘는 어법이 매력적이다. 시들이 쿨하고, 앗싸리하다. 꾸미고 엄살피우고 뭔가 있는 척하는 시적 포즈는 체질에 맞지않는다"고 상찬했다.

시집해설을 쓴 김경복 문학평론가(경남대 교수)는 "김곳 시인의 시적 자리는 후기 자본주의적 삶의 형식에 대한 정면 응시와 거기에 패배해 신음을 내지르는 현대인의 전형성을 드러낸다"며 "우리의 생명을 이윤 생성의 도구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균열을 내고 참된 가치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형식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시작활동"이라고 평했다.

한편 김곳 시인은 부산에서 문단 활동을 해오다 2012년 시집 '숲으로 가는 길'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국제신문에 '시와 그곳'을 연재해왔으며 계간 '부산시인' 편집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고래가 사는 집' 등이 있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문화담론지 '창' 제65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시민 주도적 문화담론을 담아낸 문화담론지 '창' 겨울호(통권 6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표지는 재단이 개최한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인문예술축제에서 시민작가로 참여한 정민식 씨 가족 작품으로 장식했다. 특집기획 '우주인(우리는 주체적 문화인)'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체적 시민들이 문화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며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직이 불러보는 이름들=이동순 저자

이 책은 이동순의 전 생애에 걸친 문학적 발자취를 집대성한 산문집이다. 회고록이자 자서전으로 불리기에도 손색없는 이번 저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을 더듬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망팔을 바라보는 오늘날까지의 생을 촘촘히 묶어냈다. 한 작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과 일화들을 써내려간 듯 보이지만, 조금만 떨어져 보노라면 한 시인이 탄생하고 우뚝 서기 위해 거의 필연적으로 추동되고 있는 개인사와 역사의 결속이 함께 읽힌다는 데서 또다른 의미와 여흥이 발생한다. /문학동네·1만8천500원

▲저 별은 어떻게 내가 되었을까=그레그 브레네카 지음, 이충호 옮김

'지구의 파괴자'라는 익숙한 통념을 걷어내면 지구, 생명, 인류, 문명과 수십억 년 동안 상호 작용하며 오늘날의 세상을 형성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한 운석을 발견하게 된다. 운석의 숨겨진 '큰 그림'을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우주화학자 그레그 브레네카가 열정과 재치를 발휘해 '저 별은 어떻게 내가 되었을까'에서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천문학과 인류학이 한데 어우러진 이 책에서 독자는 운석에 대한 새로운 의의와 우리 존재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웅진지식하우스·2만원

▲울지 않는 달=이지은 저자

한국 그림책의 독창성을 거듭 경신해 온 작가 이지은이 처음으로 소설가의 옷을 입고 독자들을 만난다. 이지은이 직접 이야기를 짓고 삽화를 그린 소설 '울지 않는 달'은 어느 날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진 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잔혹하지만 아름다운 대지 위에서 달이 겪어 내는 삶을 한 편의 시처럼 연가처럼 순정하고 따스하게 들려준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와 끝내 연결돼 있을 그 답을 작가는 귀중한 보물처럼 겹겹의 이야기 속에 포개어 건넨다. /창비·1만6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